

베트남 중앙당, 호치민시 종합개발계획 발표

- 베트남 중앙당은 작년말에 2010년까지 호치민시 개발 청사진안을 발표하였는데, 호치민시를 베트남 성장의 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.

□ 호치민시 종합개발안의 필요성

- 베트남의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는 경제, 문화, 과학·기술의 중심지일 뿐만아니라 국제적 상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.
- 그러나 최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의 경제발전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으며 경쟁력면에서도 취약한 편임. 현재 호치민시의 주력 육성대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과학·기술, 금융 등의 분야는 아직 낙후된 편임. 여기에 동 지역 국영기업의 상당수가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협동소유기업들도 성장이 취약한 상태임.
- 인프라면에서는 호치민시는 경제발전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점차 경제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난, 수해, 환경피해 면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심각해지고 있음.
- 호치민시가 베트남의 경제발전 및 공업화, 그리고 경제·과학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 등의 면에서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동성과 창조성을 갖추어야함.

- 이러한 제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치민시는 우선 다음의 과제를 수행

- 첫째, 산업분야를 기계공업, 전자·통신, IT, 바이오 엔지니어링, 신소재, 공업용 원자재 생산, 농산물 가공, 내수 및 수출용 상품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재편해야 함. 또한 시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함.
- 둘째, 시를 무역, 금융, 과학·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무역서비스, 금융, 통신, 관광, 운송 등을 육성할뿐 아니라 상품시장, 금융시장, 부동산 시장 등도 발전시켜야 함.
- 셋째, 시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적극유치와 수출촉진에 나서야 하며 관련 각종 제도 및 법령을 정비, 간소화해야 함.
- 넷째, 경제 전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쟁강화를 위한 법체제를 마련하며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추진함.
- 다섯째, 숙련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의료시스템과 병원시설을 마련하도록 함.

□ 시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

- 중앙정부는 각 부처로 하여금 호치민시의 성장촉진을 위해 제반규제를 철폐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시가 주요 사업을 위한 권한위임체제를 강화하도록 함. 이 경우에 시는 해당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민감한 국가전략적 사업추진시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통제를 받아야 함.
- 중앙정부는 시와의 공동부담으로 시의 예산증액을 금년부터 5년간 추진해 호치민시의 중점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시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임.

선임연구원 김종호(3779-6674)
E-mail: jhokim@koreaexim.go.kr